101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85번지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2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1. 다 찬양하여라 …… 다함께
♠ 자연신경 …… 다함께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섭리자인 하나님을 믿으며, 자연이 하나님의 몸과 말씀임을 믿나이다. 우리는 만물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연은 사랑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나이다. 우리는 생명과 평화, 자유와 해방의 영이신 성령을 믿으며, 자연은 창조질서에 의하여 보전되고 유지됨을 믿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연 안에 충만함을 믿으며, 자연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임을 믿나이다. 우리는 녹색교회가 생명 살림의 터전임을 믿으며, 평화로운 세상을 여는 자연의 청지기임을 믿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자연의 힘과 사람의 신실한 노동을 통해서 자연이 새롭게 창조 되어 감을 믿나이다. 우리는 풍요와 편리를 따르는 것이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연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는 자연의 붕괴가 인류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엄숙히 받아들이나이다. 우리는 자연을 착취하고 사지로 내몰았던 행태를 참회하고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녹색은총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열고 생명을 살리는 환경선교에 매진하겠나이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마5:3,4 …… 인도자
♠ 교 독 문 …… 113. 자연과 환경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최다미 학생 II.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242(통233).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 다함께
성경봉독 …… I. 고전13:4-7
II. 렘1:4-10, 마10:26 …… 이형석 학생
최현옥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씀 …… **I. 기다림 속의 열정**
II. 녹색 예언자 …… 손성현전도사
양재성 목사

찬 송 ····· 477. 하나님이 창조하신 ····· 다함께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평화의 인사 ····· 다함께

은총의 숲 ····· (영상물 시청) ····· 다함께

♠ 환경실천수칙 ····· 다함께

• 바쁘게 경쟁하는 삶보다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물 부족국가인 이 땅에서 오염되어 죽어가는 물을 살리기 위해 물 사용을 줄이고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한다.

• 풍성한 식탁보다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간소한 생명의 밥상을 차리고 성만찬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감사히 먹되,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절약, 단순, 소박한 생활로 생활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농촌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땅에서 생명농법으로 자라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다.

• 정부의 잘못된 환경정책, 무분별한 국토개발을 비판, 반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 교회는 환경선교, 환경주일지키기, 환경학교 등을 통한 환경교육실시로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억제, 자가용 이용자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등 자발적으로 환경실천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환경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 교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재활용장터, 유기농산물 직거래장터, 환경정보제공 등에 주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린 환경교육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한다.

• 교회는 지속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 자연을 돌아보고 이웃을 보살피는 상생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할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전 우주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도록 노력한다.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 양재성목사

▣ 믿/음/으/로/읽/는/글/

새 · 바람 · 웃음,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리는 교회

- 생태적 삶으로 영성공동체 이루는 포항 푸른마을교회 -

교회가 자연을 품고 있는 것인지 자연이 교회를 담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포항노회 푸른마을교회(이상은 목사 시무)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그리고 지나가는 바람까지도 함께 어우러져 소박하지만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연친화적인 전원 교회다.

이상은 담임목사와 그의 부인인 김이화 목사(교육목사)가 공동목회로 섬기고 있는 푸른마을교회는 지난 1997년 포항 학산동의 작은 마을에서 2층 상가를 얻어 처음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모두들 아파트 촌으로 떠나 교인 늘리기에 급급할 때 부부는 '자연을 따르는 삶'이 영육간의 조화롭고 건강한 삶이라고 여겨 이 곳 성곡리 '숲 속'에 교회를 건축했다.

김이화 목사는 "영육간의 조화롭고 건강한 삶은 생태적 삶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순리"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푸른마을교회가 꿈꾸는 '생태적 삶과 영성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기본 목회방침으로 삼고 그 일환으로 생태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교회 앞 억새밭을 일구고 교인들과 유기농법을 실천하며 건강한 먹거리와 농업살리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생태적 삶'과 '영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해마다 '푸른마을 자연학교'를 개최하고 전교인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생명농법으로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푸른마을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다. 자연을 따르는 삶은 결국 겸손한 삶이고, 겸손한 삶은 신앙인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무엇보다 교회는 율법과 형식에서 벗어난 교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교회를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공유한다. 주일예배는 참석하지 않아도 교회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레져교인'까지 생겨날 정도다. 그러나 이 목사는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처럼 찾아오기 때문이란다. 그것이 바로 두 교역자가 말하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천천히 기초를 놓는 사역"이다.

그러나 '뜨거운'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온 교인이라면 자칫 푸른마을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1인 1봉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굳이 섬김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와서 즐겁게 '놀다가' 가면 된다.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된다. 모든 헌금을 무명으로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푸른마을교회에는 '지쳐서' 온 교인들이 많다. "교회는 즐거운 곳이고,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부는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생생하게 살아나야 가정과 직장 이웃에게 기쁨과 위로와 화목이 된다"면서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웃섬김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3~40대의 젊은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답게 젊고 에너지가 넘친다. 이웃 섬김도 남다르다. 김 목사의 표현대로 '교인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교회'지만 지역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바로 푸른마을교회다.

외부의 지원없이 교인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해 '무료이미용봉사' '자연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마을경로잔치' '지역민을 위한 무료 기타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목회와 선교는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는 이 목사의 목회철학에 따라 예배의 성경공부, 기도회와 신앙강좌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도 열심이다. 특히 올해부터 제자훈련과 전도프로그램을 강화해 포항지역 내 복음의 씨 뿌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회의 역량이 커져야 지역이 원하는 교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목사의 설명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구석구석 '거룩함'이 엿보이는 것은 교회가 기독교문화와 기독교가 가야할 방향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이 목사는 '생태공동체마을' 조성에 큰 비전을 품고 있다. "농촌 교회의 변화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목사는 "21세기 교회의 대안은 생태공동체로서의 마을"이라고 강조하며 20여 명의 교인들과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정하고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다.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가기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못 보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느림'의 미학. 푸른마을교회가 존재하는 방식도 그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 마/음/으/로/읽/는/글

성聖 물고기

기어이 가야 할 그 어딘가가 있어 / 여울목을 차고 오르는 저
눈부신 행렬 좀 보아
잠시만 멈추어도 물살에 밀려 / 흘러가 버릴 것이므로
아픈 지느러미를 파닥여야하네
푸른 버드나무 그늘에서조차 / 눈 감지 못하네
오롯이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있어
눈 뜨고 꾸는 꿈은 얼마나 환할 것인가
그 아득한 향수가 아니고서는 / 저 비늘이 온통 은빛일 리가 없지
떠도는 수행자의 생이 그러할 것인가
뉘우침이 많은 동물이어서
평생을 물에 제 몸을 씻으며 / 물고기는 한사코 길을 간다네
온몸으로 물을 뚫고 길을 내지만
이내 제 꼬리지느러미로 손사래를 쳐 지워버리네
지나온 길은 길이 아니라네
제 몸 길이 만큼만이 길이어서 / 발자국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네
화살촉 같은 몸짓으로 말하네 /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비린내가 없다고
그러나 그것만이 살아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듯
묻고 있네 / 네 가슴에도 천국의 지도 하나 쯤 품고 있느냐고
낚시 바늘에 얹힌 한 끼 식사에 눈길 주지 않은
몇 마리 물고기 / 거친 물살에 제 살을 깎으며 / 강을 거슬러 오르네

- 복효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 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김준우 우순덕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김일랑 이은옥 박애순 백묘현 안종일 정현주 윤미경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정한구 왕영순 박권동 서수진 전세종 오정숙 이성운 왕성환 강순배 김재흥 최희영 김금하 이예정 전혜리 권미숙 이광용 형인순

월정헌금:
김미순 김종철 고영애 정두리 이봉배 이소순 이재구 황선희 전영자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조순덕 김문주 유지은 최윤희 김영순 이종현 이경남

감사헌금:
김중수 이순정 김순복 전혜리 박창운 허정윤 방문자 박두석 권미숙 전세종 김준우 박준희 이기분 오정숙 전성오 김희진 박홍재 방문성 박혜경 무명7

생일감사헌금:
김근종 정옥영 안종일 정현주

녹색꿈 헌금:
김순복 김창경 이재문 무명1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교 회	고 숙 이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정 경 례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임 정 자	임 정 자	이 소 순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문 영 혜	최 종 미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최 희 영	문 금 석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김 춘 녀	백 묘 현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임 미 심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이 갑 재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김 금 순	강 순 배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이 정 은	권 미 숙
가버나움	안 홍 숙	오 현 정	박 찬 정	안 홍 숙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강 미 라	백 혜 숙
갈라디아	유 경 순	김 명 희	김 수 진	김 명 희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영 란	이 영 란	이 봉 배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조 항 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환경선교주일 :** 오늘은 감리교회가 환경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청지기의 직분을 감사히 감당하길 바랍니다.
2. **오후집회 :** 오늘 오후 집회 시간에는 교육관에서 '가라앉는 지구'라는 영상물을 시청하겠습니다.
3. **결혼 :** 박용진 씨와 김용원 씨(김중수, 이순정 권사의 차녀)의 결혼식이 20일 12시에 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4. **새교우환영회** : 다음 주일(21일)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올해 상반기 새교우환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5. **신앙실천 :** 교회의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밥과 국을 먹을 만큼만 받아 가시고 남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다음 주 : 고린도 속)
* 설거지 봉사 : 이정현 박권동 (다음 주 : 박시내 이현순)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환경 영상물 시청	말씀 : 이성운 전도사
'가라앉는 지구'	기도 : 장재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재흥 목사	최희영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이수정 학생 윤미경 집사

6월		
	영접위원	방문성 하현철 윤성종 박효선 허정윤 김윤정
	헌금위원	한상익 문영혜(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